

## 협회뉴스



### 협회, 제1차 이사회 개최

지난 2월 2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파크하얏트 호텔에서 이방주 회장을 비롯한 민경조 부회장, 윤오수 상근 부회장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제1차 주택협회 이사회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결산과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 선진 주택정책 및 개발사례 등을 연구 분석을 통한 국내 주택 현안 해결과 정책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고품격 정보를 제공하는 주택전문지로의 협회지(월간 '주택과 사람들') 개편에 대한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자산 운용 방안 건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판단이래 향후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이홍중 화성산업(주) 사장이 신입이사로 선출되었다는 보고를 끝으로 이사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사회를 마치고 박환용 경원대학교 교수의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 제4회 정기총회 개최 안내

협회는 오는 3월 21일(화) 제4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 일 시: 2006년 3월 21일(화) 11:00
- 장 소: 르네상스서울호텔 다이아몬드볼룸
- 회의안건: 2005년도 결산 및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등

## 회원뉴스



### 금호건설, 신 CI 선보여

금호건설(대표이사 부회장 신훈)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창립 60주년을 맞아 새롭게 혁신적인 CI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1일, 종로구 신문로에 위치한 금호아시아나 빌딩 3층 금호아트홀에서 박삼구 그룹회장과 금호건설 신훈 부회장 등을 비롯한 사장단 및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신 CI 및 아름다운 기업 선포식'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금호건설의 신규 CI라는 것은 바로 "고객과 함께 아름다운 미래 비상하는 아름다운 기업이 되겠다"는 의지를 형상화한 것.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상징하는 색은 고유의 붉은 색을 사용했다고 금호건설측은 밝혔다. 이는 붉은 색이 강한 가시성과 인지도로 기업의 강력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데 적합하며, 고객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간직하기 위해서다. 또한 금호아시아나 그룹을 상징하는 붉은 색은 임직원들에게 자신감과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하는 의미도 있다고 한다.

### 부영, 새 브랜드 '사랑으로' 도입

부영이 '사랑으로'라는 새로운 아파트 브랜드를 도입했다. 이 브랜드 이름은 올해 초 분양 중인 강릉 연곡 1, 2단지 아파트에 최초로 적용됐으며, 향후 신규로 공급되는 모든 아파트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엔 부영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아파트는 '사랑으로'는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의 이미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부영의 고유 이미지인 '원앙'을 결합한 부영아파트는 이곳에 사는 모든 고객들이 화목하고 행복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기를 기원하는 부영의 건설 철학을 내포하고 있다. 여러 가지 수식어구와 어려운 단어로 치장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도 부영만이 가진 장점이다. 고객



### 금호건설, 사랑의 헌혈 캠페인

지난 2월 15일 금호건설 신훈 부회장을 포함한 임직원 50여명은 대한적십자사 중앙혈액원을 찾아

전임직원이 모아 온 헌혈증서 500장 및 성금 기증식을 가졌다. 성금 기증식 후 금호건설 전임직원은 직접 헌혈에 나섰다. 그동안 금호건설 임직원이 정기적으로 헌혈을 실시해 헌혈증 모으기 운동을 전개해 왔던 것. 특히 이날 직접 헌혈 봉사활동에 나선 신훈 부회장은 "최근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리며 혈액공급의 부족이 사회적으로 문제화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기업이 나서서 전사적으로 헌혈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다면 조금이나마 혈액 수급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 동부건설, 주부 주택연구회 '명가연' 창단

동부건설(대표이사 최현기)은 지난 2월 10일 고객 주택연구회인 '명가연(名家研)' 창단식을 가졌다. '명가연'은 '이름난 좋은 집을 연구하는 모임'이라는 뜻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10명의 주부들이 앞으로 10개월 동안 소비자 및 타사동향 조사,



국내외 아이디어 조사, 모델하우스 분석평가 등의 업무를 하게 되는 프로그램이다. 이처럼 동부건설은 고객의 참여를 이끌어내 차별화 아이템을 발굴하는 한편 상품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주택 상품의 품질과 소비자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설계 차별화를 통해 고급스럽고 세련된 외관디자인을 선보여 온 동부건설이 인테리어 등을 포함한 내부구조에서도 차별화를 시도해 주목받고 있다.

주택연구회를 통해 급변하는 고객의 니즈를 미리 분석해 고객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집'을 표방하는 센트레빌의 궁극적 목표다. 이러한 빠른 움직임은 고객만족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센트레빌 브랜드 파워를 업계 상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동부건설의 굳은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분양이 없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5400여 가구를 분양하는 등 앞으로 꾸준한 분양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동부건설의 향후 주택부문에서의 행보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 현대산업개발, 전사적 무재해 캠페인 'SELF SAFETY 2006!' 선포식

현대산업개발(대표이사 이방주)은 28일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 컨퍼런스룸에서 이방주(李邦柱)사장을 비롯해 노동부 및 산업안전공단 관계자와 임직원, 협력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사적 무재해 캠페인「Self Safety 2006」 선포식을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Self Safety 2006」 특별 캠페인은 관리감독자(Supervisor)가 안전교육과 기술을 적극 지원하고, 근로자(Employee)는 자발적으로 현장안전규칙(Law)을 준수하여 미래지향적인(Future) 무재해 사업장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날 이방주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전년 대비 14% 재해 감소를 달성한 임직원과 협력업체 대표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기업이 인간존중의 가치를 실현시키고, 기업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산업재해 예방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전사적인 무재해 달성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높이자"고 당부하며 3곳의 우수 현장, 6명의 유공직원, 3개의 우수 협력업체에 표창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한편 이번 특별 캠페인의 일환으로 10곳의 현장에 무재해를 상징하는 깃발을 수여해 일정기간 보유한 후 순차적으로 다른 현장에 전달하는「안전 릴레이 운동」을 병행키로 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번에 실시하는 「Self Safety 2006」 외에도 현장 여건에 따라 안전기술을 적용하는 '맞춤형 안전관리 제도' 및 근로자의 불안정한 행동을 적극 개선하기 위한 '일일 1인 1포인트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등 전사적인 안전경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 롯데건설, 발코니 디자인 주부 공모전 시상식

롯데건설(대표이사 이창배)은 최근 실시한 주부 및 여성대상 '발코니 디자인 공모전'의 입상자 31명을 발표한 뒤 입상자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박정란 씨 외 30명의 입상자가 초대됐다. 롯데건설 이창배 대표이사 및 임직원이 행사에 참석해 입상자를 축하했다.

이번에 진행된 '발코니 활용방안 주부 아이디어 공모전'은 작년말 합법화된 '주택발코니 구조변경 합법화'와 관련해 가정주부의 발코니 활용과 관련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응모시키는 취지에서 기획된 행사였다. 이와 관련해 롯데건설은 '가족 사랑이 반영된 발코니'란 주제로 주택 발코니 활용과 관련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주부 및 여성을 대상으로 활용 계획서, 공간 스케치, 그래픽 디자인 등을 제출받아 엄격한 심사기준을 거쳐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 입선 20명 등 총 31명이 수상자로 선정했다.

롯데건설은 수상자 상금으로 대상 500만원, 최우수상 300만원 등 총 3200만원의 상금과 함께 상패를 수상자에게 전달했다. 본상에서 제외된 참가

자 전원에게는 감사장을 우편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끝으로 롯데건설은 이번엔 선정된 좋은 아이디어를 향후 발코니 평면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신공영, 창립 56주년 기념행사

한신공영(대표이사 태기전)은 창립 56주년을 맞이해 창립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한신공영은 기업이념인 효를 근간으로 윤리경영을 추구하는 회사로 1950년 창립 이후 2만여 세대의 신반포 한신타운 건립을 필두로 전국적으로 20만 세대가 넘는 주택 보급 실적과 수많은 기간산업 건설 등 오랜 역사와 함께 풍부한 시공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종합건설회사다. 지난 23일 열린 한신공영의 창립 기념식은 전 임직원을 비롯한 협력사 대표와 관계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부서, 장기근속 직원 및 우수 협력사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는 등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달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날 최용선 회장은 창립 기념사를 통해 수년 내 도급순위 10위권 진입이라는 구체적인 중기목표와 더불어 한신공영을 세계가 인정하는 초일류 건설회사로 도약시키겠다는 강한 포부를 밝혔다.

